

“근대문화도시 목포의 얼굴 시로 그렸어요”

목포 소재 시 500편 수록 시집 5권 펴낸 김재석 시인

5년 전 교직 명퇴, 작시 전념

유달산 등 2년간 구석구석 답사

역동적인 목포 풍경 이미지화



“1983년 이후 지금까지 목포에 동지를 들고 살고 있습니다. 고향 강진이 나를 낳았다면 목포는 나를 키운 곳이지요. 나를 낳은 강진과 그리고 나를 키운 목포에 시집들을 바치고자 합니다.”

목포는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다. 1897년 개항한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 근대역사관 등 근대역사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또한 전통적인 항도(港都)라는 이미지 외에도 예향(藝鄕)과 의향(義鄕)의 의미도 갖는다. 다도해의 모퉁이기도 한 목포는 이렇듯 다채로우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최근 강진 출신 김재석(사진) 시인이 목포를 소재로 한 다섯 권의 시집을 펴내 눈길을 끈다. 각각의 작품집은 제목만 봐도 목포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 ‘유달산 뱀파새 첫 울음소리’, ‘유달산 뱀파새 마지막 울음소리’, ‘눈 내리는 이훈동정원’, ‘달리도, 외달도, 울도’, ‘목포문화관’ 등 5권 시집(사외재 간)에는 각각 100여 편씩 500여 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시인은 “목포의 자연과 문화를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접목했다”며 “작품을 쓰다

보니 새로운 시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2년 ‘목포’라는 시집을 발간하면서 기초 조사를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작품집들이 나오게 된 계기는 지난 2015년 ‘목포 다순구마-보리마당’ 시화전에 초대받으면서다. 목포에 관한 그리고 시화전 취지에 맞는 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스무 줄 안팎의 시라는 규정에 맞춰 쓰다보니 짧으면서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썼다. “대반동, 소반동, 우달산 뒤 봉후동, 덕산마을 등 구석구석을 답사했습니다. 내 친걸음에 새롭게 발돋움하는 북항, 노을공원, 루미나리에 거리, 평화광장 등 원도심과 신도심을 봤지요.”

그는 서산동과 온금동 일대를 몇 차례 뒤지고 다니면서 목포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그렇게 2년에 걸친 답사와 창작 끝에 5권의 시집이 탄생했다.

유달산 뱀파새는/ 유달산 뱀파새 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 먼 나라에서/ 도착한 날부터// 밖으로는/ 귀명창인/ 다도해의 수많은 섬들이/ 귀를 곤두세우고 있으니/ 안으로는/ 유달산의 바위와/ 꽃나무들이/ 귀를 곤두세우고 있으니”(유달산 뱀파새 마지막 울음소리)에 수록된 ‘유달산 뱀파새’

‘유달산 뱀파새’는 목포시에서 발행한 ‘목원동 이야기’(최성환 저)가 모티브가 됐다. 책자가 친절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로 옮겼고 그 결과물이 한 권의 시집에 오롯이 담겼다.

작품집 ‘목포문화관’은 한 달에 한 차례

진행됐던 ‘황현산 교수의 문화읽기’ 강의가 매개가 됐다. “그 시간에 만난 보들레르, 베를렌, 랭보, 발레리 그리고 아폴리네르와 그냥 헤어질 수 없어 그분들과 함께 한 시간을 시로 남겼다.”

그리고 ‘달리도, 외달도, 울도’는 유달산과 목포 앞바다가 함께하여 태어난 섬들의 풍경을 시화한 시집이다. 목포에 속한 섬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이 작품집은 달리도 지킴이 김대욱씨가 부추겨 태어났다”고 밝혔다.

5권을 가볍게 훑어보는 것으로 문화근대도시 목포의 다양한 얼굴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으로 ‘다작’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그는 “직관으로 시를 쓰기 때문”이라며 “언어와 환유기법도 소재를 이미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5년 전 교직에서 명퇴한 이후로 쓰고 싶은 시를 맘껏 쓰고 지내기 때문”이라며 웃었다.

평론가인 대전대 황정선 교수는 “김재석 시인은 목포의 시인이다. 이 말은 그가 단순히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만은 아니다”며 “목포의 모든 것들이 그의 언어가 되고 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목포가 만들어낸 시인이기도 하고 목포의 대변인이기도 하다”고 평한다.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한 시인은 199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으며 2008년 유심신인문학상(시조부문)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다산’, ‘강진시문학파기념관’ 다수의 작품집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황태자와 악마의 만남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리스트 vs 파가니니’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피아니스트 피터 클리모

내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리스트와 파가니니가 동시대에 만나 한 무대에서 연주회를 한다?’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리스트 vs 파가니니’ 공연이 오는 24일 오후 6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19세기 최고의 음악가로 손꼽히며 낭만주의 음악을 꽃피운 ‘피아노의 황태자’ 프란츠 리스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그 대가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오명을 쓴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

파가니니의 곡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리스트의 곡은 피아니스트

피터 클리모가 맡는다. 백주영은 뉴욕의 카네기 홀, 링컨 센터,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 도쿄 산토리 등 세계 주요 무대에서 협연과 독주회를 가졌고 피터 클리모는 지난 2014년 리스트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한 바 있다.

이날 공연에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리스트의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 3번’, ‘헝가리안 랩소디 13번’ 등이 펼쳐진다. 관람료 2만원(청소년 무료관람).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g-jart.gwangju.go.kr>)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5.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시민연극프로젝트 참가자 이달까지 선착순 15명 모집

시민이 직접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시민연극프로젝트 2차 퍼블릭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시민연극프로젝트 2차 퍼블릭프로그램은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상주단체’에 선정된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환)’이 진행한다.

이번 2차 퍼블릭 프로그램은 현진건 소설가 작품 중 ‘무명탑’, ‘운수 좋은 날’, ‘B사감과 러브레터’를 한데 묶은 낭독극을 함께 만들고, 최종발표회를 선보일 예정

이다.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희곡에 대한 기본적 이해 ▲대본작업 및 완성 ▲리딩 및 퍼포먼스 ▲언어훈련, 신체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만 13세 이상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선착순 15명을 31일까지 모집한다. 푸른연극마을 이메일(green.theater@naver.com) 또는 전화(062-226-2446)접수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전은재기자 ej6621@

광주 동네책방 찾은 김영하 작가

작가 김영하가 지난 20일 광주 동네서점 겸은책방원책방에 나타났다.

김 작가는 ‘어쩌다 가게 된 동네에 동네책방이 있다?’ 이라는 발상에서 지역의 작은 서점을 방문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책방에 들려 구경도 하고 자신의 책이 있다면 사인본이라도 몇 권 남기고 오자는 마음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겸은책방원책방에 나타난 김 작가는 30분 정도 머무르며 자신의 책 사인도 하고 독자들과도 담소를 나눴다. 김 작가가 광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한 팬들은 4시 이전부터 책방에 몰려와 작가를 기다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근 광주 겸은책방원책방을 찾은 김영하(왼쪽) 작가와 독자가 사진을 찍는 모습.

이은경 겸은책방원책방 대표는 “당일 게릴라 홍보만으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서점에 올 줄 몰랐는데, 역시 인기 작가라 팬들의 관심이 높더라”며 “덕분에 작은 동네책방 홍보도 되고 책도 많이 팔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처럼 생생한 요한계시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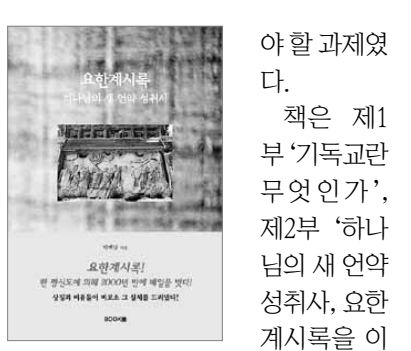
박백남씨 ‘요한계시록’ 발간

성경해석이 있어 ‘요한계시록’만큼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은 없다. 다른 복음서처럼 알기 쉽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얽여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묵회활동에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최근 한 평범한 기독교 신앙인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유와 상징을 성경에 기초한 논증과 역사적 자료를 통해 접근했다. 박백남 씨가 최근에 펴낸 ‘요한계시록-하나님의 새 언약 성취사’(BOOK樂)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기 쉽게 풀어낸다.

저자는 지난 1997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석류꽃엔 눈물샘이 있다’가 당선돼 시집 ‘몽글’ 등을 펴낸 시인이기도 하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비유와 상징을 무기로 시를 쓰는 시인인 저자에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풀어내



야 할 과제였다. 책은 제1부 ‘기독교란 무엇인가’, 제2부 ‘하나님의 새 언약 성취사,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제3부 ‘하나님의 새 언약 성취사, 요한계시록 바로 읽기’ 3부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압축판” 즉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모두 담겨 있기에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예수님 재림 전의 징조들과 예수님 재림 이후의 믿는 자들의 노정을 알 수 없다고 강조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책 2000권 이상 가진 ‘모범장서’ 도전하세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2000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평소 책읽기를 실천해온 ‘모범장서’를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출판문화협회가 지난 1964년 책 읽는 풍토를 조성하고 범국민 독서문

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시상제도로, 지난 2007년 새롭게 부활돼 11년째를 맞았다.

일반도서 2000권 이상을 소장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문의 070-7126-4734 /박성천기자 skypark@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입시공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터디자이너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혜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